

제22호·2016년 10월 5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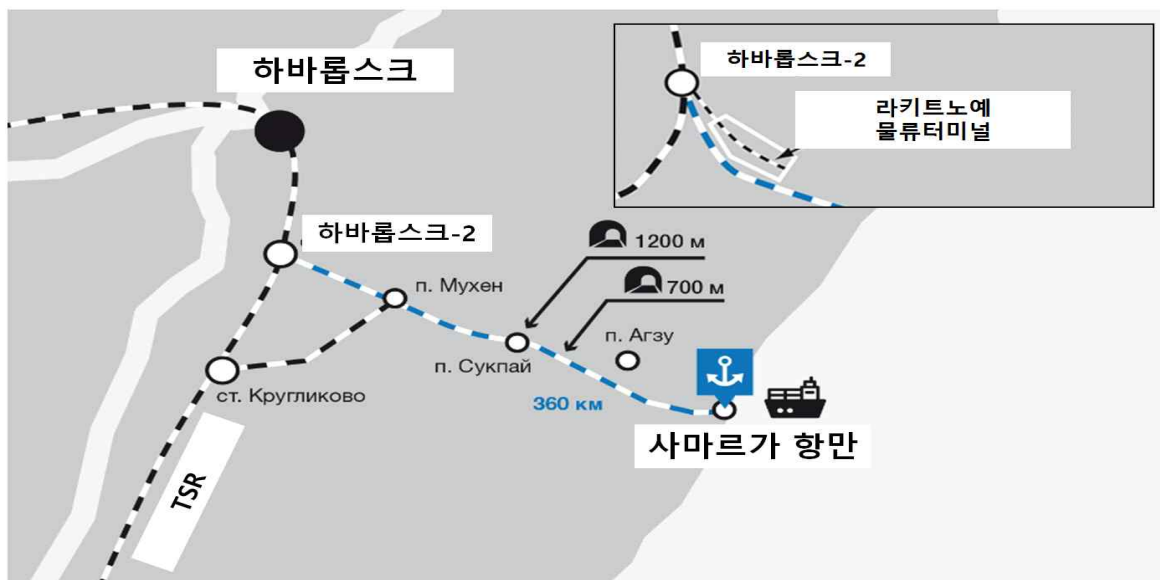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이슈

‘하바롭스크-2’ - ‘사마르가항’, 극동러시아 신규 물류루트 개발

-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(Trans Siberian Railroad)의 연장선인 이번 물류루트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-서를 잇는 철도 거리가 약 500km 단축됨
- 이번 프로젝트는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‘사마르가홀딩(Samarga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)’사가 진행할 예정이며, 필요한 투자금액은 약 4,000억 루블¹⁾로 예상되며 현재 투자자들을 모색하고 있음
- 본 프로젝트는 ‘하바롭스크-2(Khabarovsk-2)’에서 ‘사마르가(Samarga)항’까지 연결되며,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임
- 사마르가항은 연간 약 8,0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, 항만배후단지에 5만 명이 거주 가능한 도시건설 계획도 이루어질 예정임

<하바롭스크2 - 사마르가 항 철도구간>



자료: <http://samargaholding.ru/railway>(검색일 : 2016년 9월 27일)

1) 약 6조 9,440억 원(2016년 9월 18일 기준), KEB 하나은행 외환포탈, <http://fx.kebhana.com/FER1101C.web?schID=fex&mID=FER1101C>(검색일: 2016년 9월 18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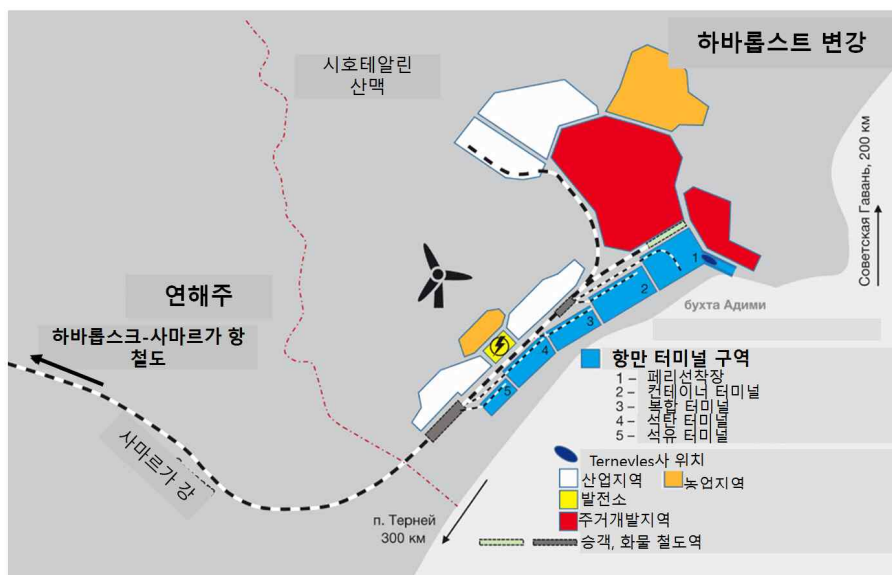


- 또한 사할린, 캄차트카, 마가단, 쿠릴열도를 연결하는 페리선이 운행될 계획임
 - '사마르홀딩'사는 '중국산업은행'과 일본 'ROTOBO 사업협회'를 통해 양 국가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
- '하바롭스크-2'- '사마르가항' 간 철도라인이 연결될 시 기존의 물류 루트대비 톤당 비용은 약 350루블 감소될 수 있으며, 시간은 약 1.5일 단축됨
 - 또한 본 구간에는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'라키토노예(Rakitnoye) 물류센터'가 위치하고 있어 극동러시아 물류의 중요한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됨
- 이 지역의 특징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속성을 지니며, 향후 국제화물 운송 경로로 효율성을 지니게 될 것으로 기대됨

사마르가항 개발 현황 및 기대효과

- 현재 러시아 대외무역의 약 60%는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
 - 러시아 정부는 사마르가항 개발을 통해 극동러시아에서의 화물 운송 및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
 - 또한 이를 통해 아시아-태평양 국가들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

<사마르가 항 개발 계획>



자료: <http://samargaholding.ru/samarga>(검색일 : 2016년 9월 27일)



- 사마르가항을 개발함에 따라 극동러시아에서 최대 상업용 항만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함
 -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상품 저장 공간, 행정 업무, 화물 하중에 따른 선석 등의 화물 처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 - 또한 철도-해운 환적 및 환적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- 사마르가홀딩사는 사마르가항이 개발됨에 따라 한국, 중국,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-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TSR과 연결되는 최단루트에 대한 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
 - 아시아-태평양 국가들 중 일본과의 상호 경제 성장을 기대함
 - 사마르가항과 일본의 바카나이항과의 거리는 약 300km로 주변 국가의 주요항 중 가장 최단 거리임

<사마르가항-동북아 주요항과의 거리>

구분	항만	국가	거리
1	호르므스크	러시아	250
2	네벨스크		250
3	코르사코프		400
4	블라디보스토크		750
5	마가단		1,600
6	페트로파브롭스크-캄차트카		1,850
7	바카나이	일본	300
8	이오코가마		1,650
9	니가타		1,000
10	부산	한국	1,600
11	상하이	중국	2,4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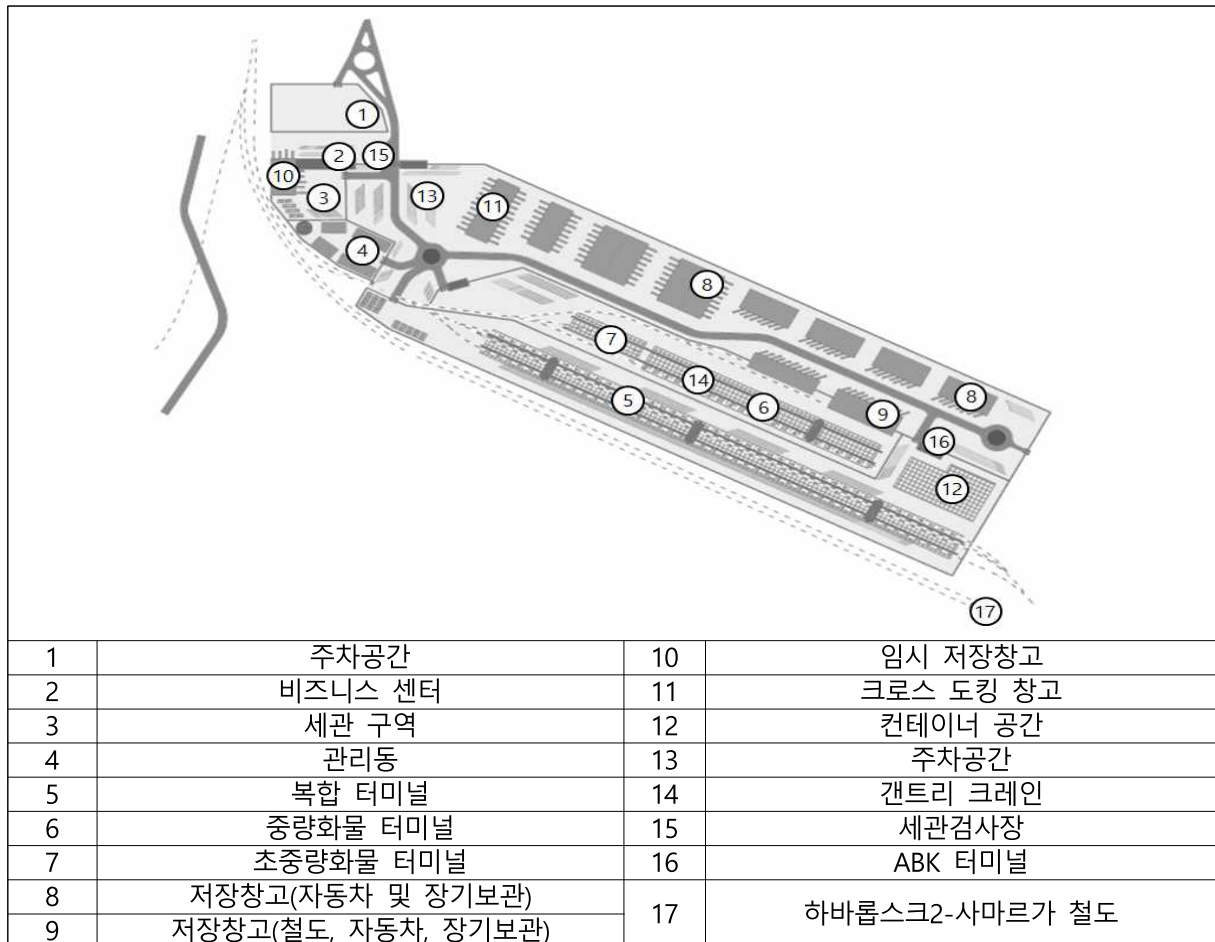
자료: <http://samargaholding.ru/samarga>(검색일 : 2016년 9월 28일)

라키토노예(Rakitnoye) 물류센터 현황 및 기대효과

-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'라키토노예 물류센터'는 하바롭스크-2' - '사마르가항'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, 국제화물 유치, 화물운송 효율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발됨
 -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스템, 기술 등을 도입할 예정임
 - 현재 물류센터 개발을 위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



<라키토노예 물류센터>



자료: <http://samargaholding.ru/samarga>(검색일 : 2016년 9월 27일)

- '라키토노예 물류센터'는 아시아-태평양 국가 간의 물류 네트워크 개발과 하바롭스크시의 지리적 잠재력에 따라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됨
- 러시아 정부는 라키토노예 물류센터를 건설함에 따라 러시아 국내 상품 시장, 건설업, 서비스업,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자료: <https://forumvostok.ru/en/samarga-international-transport-corridor-project-to-be-presented-at-eastern-economic-forum/>(검색일 : 2016년 9월 18일), <http://samargaholding.ru>(검색일 : 2016년 9월 27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58, usea1004@gmail.com

물류동향

‘프리모리예-1’,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 시작

- 지난 9월 말 ‘프리모리예-1’을 통해 처음으로 철도 운송이 시작됨
 - ‘프리모리예-1’은 연해주 항만과 중국 헤이룽장성을 연결하는 국제교통회랑으로 주로 철송을 이용하며, ‘프리모리예-2’의 경우 트럭킹이 주요 운송수단임
 - 이번 운송은 목재를 실은 62개 컨테이너(42ft)를 9월 30일 그라젠코보(Grodenkovo)역에서 출발하여 약 이틀 후 극동 항만에 도착한 뒤 중국 상하이 및 황푸항으로 환적 하는 루트로 진행 예정임
- 이번 시범 철도 운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러시아 간의 교통·물류가 강화되면, 러시아 측에서 ‘프리모리예-1’을 통한 철도 운송을 할 경우 모든 화물에 대한 최적의 운송 비용을 제시할 예정임
- 향후 중국은 정기적으로 ‘프리모리예-1’을 통해 나호드카항 및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며, 2017년에는 약 50만 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함

<‘프리모리예-1’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>



자료: <http://infranews.ru>(검색일: 2016년 10월 1일)

자료: <http://infranews.ru>(검색일: 2016년 10월 1일)

이하림 연구원
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